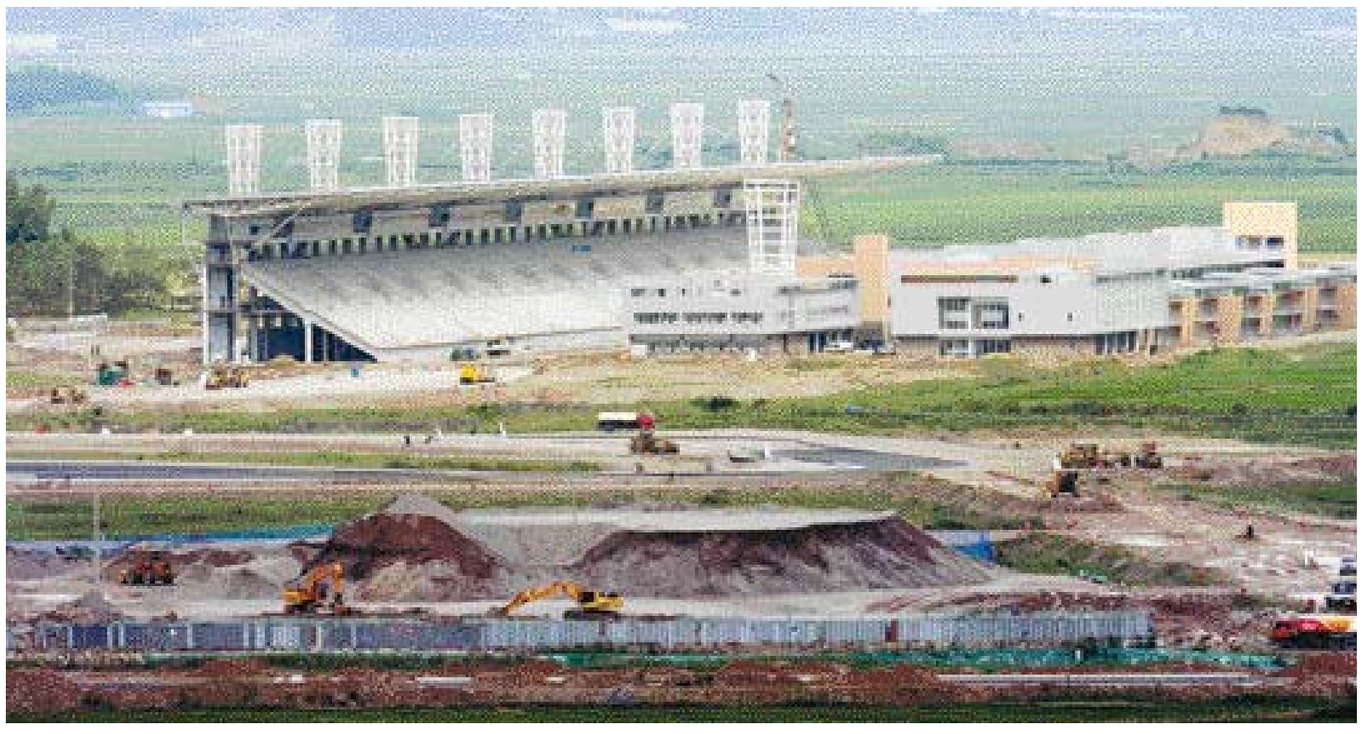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6/33℃ 목포 25/31℃ 여수 25/29℃
단기 4343년 (음력 7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61호 1판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황토투성이 경주장 24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F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현장. 그랜드스탠드가 설치되고 서킷(5.596㎞)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두달 남은 F1 아직도 공사중

시공사 SK건설 경주장 완공 또 연기…대회 차질 우려 심각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어지면서 60일 앞으로 다가온 국내 최초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10월22일~24일)가 원만하게 치러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준공이 늦어져 경주장 사전 점검을 위한 아시아지역 모터 스포츠 대회가 무산된데 이어, 12만명이 관람하는 일반스탠드 건설공사도 개최 직전인 10월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한국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에 짓고 있는 경주장(185만3000㎡)과 관련, 시공사인 SK건설측과 경주장 건설 공사 완공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경주장 건설 공사를 당초 지난 7월 8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잦은 비로 인해 공정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진 일부 부대시설과 추가 공사 등을 감안해 공사 완료 시점을 9월 말로 한차례 늦춘데 이어, 다시 11월 말까지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AVO와 시공사측은 "대회 개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주장 주변 부대시설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10월 말 열리는 F1 대회 및 9월 초로 예정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서킷 및 안전시설 검수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킷(5596㎞) 공정률은 92%, 그랜드스탠드(1만6000석)의 경우 98.6%, 차량 정비소인 피트 빌딩도 98.6%에 달하는 등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주장 서킷 공사가 당초 일정에 비해 늦어지면서 F1 대회를 앞두고 경주장 시설과 운영능력을 사전에 점검하자는 취지로 8월27일~29일 계획됐던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국제대회인 AFOS(Asian Festival Of Speed)는 무산된 상태다. 서킷 개장행사도 세차례(8월 20~22일→28일~29일→9월 4~5일) 변경된 뒤 확정됐다. 그나마 12만명을 수용할 일반스탠드의 경우 발주가 늦어지면서 현재 공정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10월 대회 20여일 전에야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KAVO가 주변 부대시설 미비를 이유로 당초 9월30일까지로 계획했던 사업기간을 11월 말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서영암군 계획시설(F1 경주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을 영암군에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라는 F1이 정식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치러질 형편이다.

F1경기장 및 부대시설 차질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한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회가 국제적 망신을 사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고 염려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율형 사립고 지정
최고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국 최상의 명문 재단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보다 확실한 장학금 제도
2008년 교과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 클린디젤산업 첫 관문 통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합격…진곡산단에 전용단지 조성

광주시가 추진중인 클린 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광주시,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283억원과 지방비, 민간자본 등 1871억원을 투입해 클린 디젤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클린 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부품개발 및 기반구축(핵심부품소재센터, 디젤전문기술센터)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편익비용(Benefit Cost Analysis)에서 경제성 판단기준인 1을 넘어선 1.056으로 분석됐으며 종합분석 결과(Analytic Hierarchy Process) 역시 기준인 0.5를 초과한 0.519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현재 조성중인 광산구 진곡동 진곡산업단지 내에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전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클린 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광주시는 핵심부품 조기 국산화와 함께 자동차산업 활성화로 생산유발 12조2000억원, 고용창출은 3만80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세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과 국내 제2의 완성차 생산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클린 디젤자동차 연구개발조직 구성 등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10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 판매부문 분리 유보

한국전력공사(한전)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판매부문을 분리해 민영화하는 방안<본보 7월21일자 1면>이 유보됐다.

하지만 철회된 것이 아니라 경쟁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촉진을 위해 내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들 발전회사의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현행 분리 구도를 유지하되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뿐아니라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만들어 한전의 원전 수출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 판매부문 분리 매각은 주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발전소 분할정책을 유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력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며 "지경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방안을 폐기하고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하라"고 반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 림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최익현 연극 광주 공연

8월 31일·9월 1일

2010년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일보사는 유림의 거목으로 을사조약 체결 후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했던 면암(勉菴) 최익현 선생의 우국충정을 그린 서사극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를 공연합니다.

표재순(JS씨어터 대표)씨가 연출을 맡고 '조선왕조 500년' 등을 집필한 신봉승씨가 희곡을 쓴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익현 역의 오현경을 비롯, 노현희·기정수등이 열연합니다.

무료티켓 배부 완료
성원 감사 드립니다
光州日報社

- 일시 : 2010년 8월 31일(오후 7시30분), 9월 1일(오후 3시·7시30분)
- 장소 :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 주최 : 광주일보사, (재)광주공연예술재단, 광주연극협회
- 후원 : 부산저축은행, 광주시교육청,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광주CBS
- 제작 : JS씨어터
- 문의 : 062-220-0541